

독서교육의 과제와 전략

안 성 수*

目 次

- I. 서 론
- II. 독서교육(지도)의 문제점
- III. 다층적 독서법과 지도전략
- IV. 독서교육과 전인교육의 관계
- V. 결 론

I. 서 론

좋은 책은 인간을 말없이 가르쳐 주고 깨달음을 주는 훌륭한 스승과 같다. 좋은 책은 언제나 독자 가까이 존재하면서 은밀한 방법으로 그들의 정신적 변화와 성장을 유도한다. 이처럼 좋은 책은 독자에게 고유한 즐거움과 정보를 제공하여 다양한 인간의 정신능력을 고양시켜 주고, 바람직한 성숙의 세계로 안내한다.

독서가 주는 이런 정신적 변화는 오직 바람직한 독서행위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바람직한 독서는 독자가 좋은 책을 어떻게 선택하여 어떻게 읽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질 좋은 책의 선택과 효율적인 독서를 전제하지 않고 이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바로 여기에 독서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새삼스럽게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독서교육과 독서지도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의 실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학생들이 좋은 책을 바르게 선택하여 능률적으로 읽는 방법을 가르치고 안내하는 일이다. 둘째는 그들이 독서에 흥미를 갖고 앞으로

* 국어교육과

- 1) 이 글은 필자가 1999년 11월 24일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주최한 <제6회 지역사회교육심포지움>에서 발표한 "21세기 인재양성을 위한 독서교육"과 1999년 11월 26일 제주도 교육청이 주최하고 제주도독서교육연구회가 주관한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강연 및 사례 발표회>에 제출한 "21세기 독서문화대국을 꿈꾸며"를 논문형태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풍부한 독서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독서심리를 자극하고 독서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그리고 셋째는 바람직한 독서습관을 형성하여 그들이 일생 동안 독서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주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부분 초·중등학교에서는 여전히 독서교육과 독서지도가 제 때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독서교육의 부재 혹은 부실 현상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의외로 커서 청소년의 독서생활과 학습행위 및 정신능력의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린 시절에 잘못된 배운 독서 방법과 독서 습관이 일생 동안 책읽기를 싫어하고 책을 멀리하는 사람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독서지도가 특별히 중요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독서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문제 제기의 성격을 띤다. 우선 학교 현장에서 발견되는 독서교육의 문제점을 대안과 함께 살펴보고, 학생들의 독서력(讀書力)²⁾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필자 나름의 독서법과 지도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독서효과의 차원에서 독서, 혹은 독서교육과 전인교육과의 관계를 논의한 뒤 결론부분에서 21세기 독서상황을 전망해 보려고 한다.

Ⅱ. 독서교육(지도)의 문제점

한국의 현행 초·중등과정에서의 독서교육과 독서지도는 제도적 차원이나 현장교육의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한국의 제도권 교육에서는 독서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무관심해왔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게 사실이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시기는 바람직한 독서 습관과 바른 독서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방치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기에 배운 독

2) 金炳元, 機能讀書(培英社, 1994), pp.88, 90-91.: 여기서 저자는 독서력을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독서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정의하고,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독서반응을 잘 일으키는 독자는 독서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독자가 필요로 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독서를 기능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의 독서는 機能讀書”라고 부른다. 기능 독서력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라면, 그러한 기능독서를 가능하게 이끄는 기본 능력은 기본 독서력이라고 한다.

서방법이 일생의 독서 취미와 독서 습관을 지배한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브래드윈(1985)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에 문학작품을 가까이 한 사람이 청소년기와 어른이 되어서도 독서에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³⁾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제도권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서지도 실태 중에는 몇 가지 우려할 만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물론 바르게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국가 교육정책 차원에서의 정책 부재와 학교 현장에서의 지도 부재 현상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제 조심스럽게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는 방관적인 독서환경이다.⁴⁾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학생들에게 무조건 읽으라는 식의 강요된 독서지도 형태가 난무하고 있다. 텍스트 선정에서부터 감상문을 작성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독서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지식이나 정보도 주지 않은 채 스스로 알아서 읽고 감상문을 써오라는 식의 주문이나 지시가 비일비재하다. 설상가상으로, 학생이 텍스트를 읽고 감상문을 써서 제출한 경우에도 교사와 함께 확인하고 토론하는 독서 후 교정 과정이 생략됨으로써 방관적 독서교육의 한 전형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교사가 독서과제에 무관심할 경우, 학생들의 독서행위와 과제작성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 뻔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빼앗고 독서에 대한 짜증과 혐오감만을 심어줄 뿐이다. 일생 동안 책을 가까이 하면서 다양한 독서를 수행해야 할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이 오히려 책에 대한 부정적 인상만 심어준다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서감상문 쓰기 과제는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아직 문자 인식조차 수월하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강제적으로 독서감상문을 써오게 하는 것은 한 마디로 반교육적이다. 어린이의 독후감 쓰기 과제는 대개 부모들이 대신해주는 것이 다반사인데, 그 부모들 또한 독후감 쓰는 법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형식적이고 방관적인 독서지도는 결과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책을 멀리하게 만들고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점을 낳게 된다. 물론, 교사들의 처지에서는 수시로 독후감 제출을 요구하는 상급기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이런 형식적이고

3) 신헌재 외 편저, *독서교육의 이론과 방법*(박이정, 1996), p.101 재인용.

4) 필자는 여기서 독서환경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 의미로 사용한다. 예컨대, 바람직한 독서교육을 방해하는 모든 제도적 장애요인이나 학교현장의 문제점 등을 두루 포괄한다.

무의미한 과제 부과는 결국 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부정적 인상과 선입견만을 제공하는 결정적 동기가 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독서에 대한 사전 지도와 사후 지도가 없는 일방적인 독서과제(독후감 쓰기)는 하루 빨리 폐기되어야 할 관행이다. 청소년은 아직 독서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 및 판단이 미흡한 연령이기 때문에 독서결과를 놓고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확인, 토론, 비판, 교정하는 점검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은 오독(誤讀)을 줄이고 객관적인 텍스트의 수용과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다.

독서의 대화적 메커니즘은 <작가-텍스트-독자>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독자-텍스트-독자> 및 <독자-텍스트-작가> 사이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사실은 교사와 학생간의 풍부한 대화적 상황 속에서 바람직한 독서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는 비체계적이고 비단계적인 독서 상황이다.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독서지도는 그 체계성과 단계성에 있어서 거의 무책의 상황이다. 독서 텍스트의 선정 문제로부터 독서방법과 절차에 이르기까지 독서교육의 비체계성과 비단계성은 널리 퍼져 있다. 학년별, 연령별, 수준별, 내용별 단계와 체계에 알맞은 책을 선택해 주고, 또 각기 학생들의 나이와 수준에 알맞은 독서방법을 가르쳐 주는 일은 독서교육의 핵심사항의 하나이다. 학생(독자)의 나이와 성장 단계에 맞는 독서교육과 독서지도가 실행되지 않는 한 독서지도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독서지도의 비체계성과 비단계성 문제는 비단 교사들만의 책임은 아니다. 오히려 전문성 있는 학자들의 연구 부진도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어떤 책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폭 넓은 연구와 함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독서지도 방법 등도 학문적으로 시급히 정립시켜야 한다. 비록 독서자료의 체계화와 목록 작성이 시급한 과제이기는 하나, 더 이상 상업성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사나 비전문가들에게 맡길 일이 아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에 드는 동서의 고전작품을 분류하여 표준 목록을 만드는 작업과 더불어 또 새롭게 발표되는 좋은 텍스트들을 선별하여 현대의 새로운 고전 목록에 포함시키는 작업도 전문학자들과 독서지도 교사들이 할 일이다.

이러한 독서 텍스트의 체계적 분류작업 못지 않게 독서 방법과 원리에 대한 단계적인 교육 또한 더 이상 늦출 일이 아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 알맞은 독서방법과 원리를 개발하여 교육하고,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생에게 어울리는 독서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독서교육의 기본이다. 나이와 성장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독서교육은 결코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책이 주는 정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독자의 수준에 알맞은 독서 방법과 원리를 개발하는 것은 독서교육의 핵심적 영역이다.

셋째는 전문성을 가진 독서 지도교사의 부재 현상도 현장교육에서의 독서지도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 중의 하나이다. 독서 지도교사는 우선 폭넓은 독서체험을 경험한 자로서 다양한 교양과 풍부한 독서력을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독서에 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이론도 체계적으로 익혀서 언제든지 실용화할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을 즐길 수 있는 열의와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 어린 학생들의 감성을 이해하고 수용해 줄 수 있는 정서와 인성을 겸비하는 것도 독서 지도교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최선책이라기 보다는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모든 교사를 독서지도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이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소수의 전문요원을 양성하여 독서지도교사로 전문화시키는 것이 한층 실현 가능한 전략일 수도 있다. 특히, 앞으로의 독서지도는 매체 다변화와 함께 전자도서 등 새로운 하이퍼텍스트의 등장에 따른 전문적 대비가 필요하다. 또 실제의 차원에서 독서지도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전담교사의 지속적인 연수 또한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담 교사제의 도입은 바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독서지도를 목표로 함으로써 독서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바른 독서생활을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넷째는 제도적 차원의 문제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보다는 상급학교인 고등학교의 독서 교과에서 보다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다. 전자들이 통합교과 속에 읽기 영역을 필수로 포함시킨데 비해 고등학교는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행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따르면, <독서> 과목은 <문학>, <화법>, <문법>, <작문> 등과 같이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어서 학교장의 재량이나 대입 수능시험에의 실용성 유무에 따라 선택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독서교과에 대한 이러한 타성적인 경시 현상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된다. 하나는 독서가 모든 학문과 학습행위의 필연적인 선행과정이라는 점을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풍부한 효용성을 놓치고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독서 교과를 국어나 문학영역에만 국한시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독서지도를 국어 교사가 전담하는 특수 전공 영역쯤으로 인식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즉, 독서행위가 모든 교과 학습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듯이 독서교과 또한 범교과적이고 범전공적인 접근과 인

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바른 독서교육은 모든 학습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본과정(필요조건)으로서 모든 교과와 전공에 필요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문제는 학교교육에서 이런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여 정규 교과과정의 필수 과목으로 포함시킬 때 바람직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데 있다. 한국의 복잡한 교육현실과 교육풍토 속에서 독서과목이 선택으로 묶여있는 한 독서지도에 대한 바람직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의 지적처럼 독서교육은 학교장의 철학이나 학교의 전통에 따라 선택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로써 보장해 줄 때 보다 합리적이고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다섯째는 독서의 생활화이다. 독서가 일생 동안 수행되어야 할 온 인류의 과제라면, 독서교육은 한 인간의 독서행위가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독서는 이성과 감성을 포함한 인간의 정신능력을 총체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창조적 동기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인간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아성찰의 시간과 비전을 제공한다. 그 외에도 교양과 정서, 심미안 등을 폭넓게 함양시켜 줌으로써 인성교육에 바람직한 효과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국민들이 책을 많이 읽을 때 그 나라의 민도 또한 높아지기 마련이다. 책을 읽는 국민이 많아지고,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는 무리가 많아질수록 국민의 정신적 역량과 정서적 포용력도 그만큼 풍요로워지고 다양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기의 독서교육은 바로 국민들의 문화의식과 선진 시민의식의 뿌리와 기본 토양을 만드는 일에 비유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정책 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이 요청된다.

여섯째는 다양한 독서 토론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와 직장,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다양한 독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범국민적으로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독서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행사들은 대중들에게 독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독자층을 넓히고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한 독서 토론회는 독서 붐을 조성하는데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그리고 학교나 직장에서 다양한 독서모임을 갖고 토론하는 것도 독서에 대한 흥미유발을 촉진하고 독서운동을 대중화하는 동기를 제공할 것이다.

일곱째는 시민과 대중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독서공간과 독서자료실

을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책을 읽는 사회, 대다수의 대중들이 글읽기를 즐기는 공동체. 이것은 바로 새로운 독서문화를 창조하여 국민대중의 문화적 민도를 높이고 나아가 독서 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선진시민 운동의 한 차원과 연결될 수 있다. 국민 대중이 TV나 비디오에 빠져 책읽기를 싫어한다면 그 사회는 미래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사회이다.

모든 시민과 국민들이 쉬는 틈을 이용해서 가까운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의 독서실을 즐겨 찾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도 다양한 독서행위를 즐길 수 있다면 사회는 한층 밝아지고 인간성 넘치는 세련된 사회로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독서공간의 확보를 위해서는 병원, 터미널, 동사무소, 시청, 군청, 면사무소, 마을회관, 노인정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나 관공서 및 사회 복지공간 등을 독서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동사무소나 두렵게만 생각되는 파출소, 소방서, 병원 등에 작은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만들어 운영한다면, 대 시민 서비스 뿐만 아니라, 독서의 대중화에도 적잖이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을 제외한 대다수 초·중등 학교들이 아직도 소규모의 도서관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볼 때 공공 도서관의 신설이나 확충 방안은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달성될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초·중등학교와 대학도서관도 일반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Ⅲ. 다층적 독서법과 지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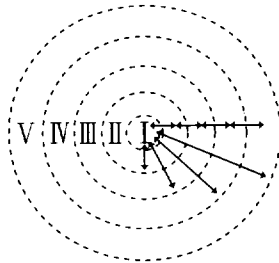
1. 다층적 독서(지도)법

이제 새로운 독서전략의 관점에서 필자가 즐겨 쓰고 있는 독서방법과 지도방법에 대하여 언급해 보기로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한 완전무결한 대답을 찾기란 불가능한 일이지만, 10여 년에 걸친 독서교육과 독서지도 경험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독서방법과 절차를 제시해 보겠다. 이것은 독자에게는 독서법이 되고 교사에게는 지도법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 방식은 대화적 독서, 비판적 독서, 상호 텍스트적 독서, 총체적 독서, 반복적 독서 등 5가지 독서 방법을 유기적으로 진행하면서 그 결과가 종합적으로 통합될 때 비로소 달성되는 독서방식이다. 이때 독서의 각 층위별 실행순서는 독자에 따

라 다를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대화적 독서를 바탕으로 비판적 독서를 수행하고, 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텍스트적 독서를 수행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의 세 층위별 독서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총체적 독서를 수행하면 다층적인 유기적 독서상황이 완결된다.

그러나 유기적이고 다층적인 독서상황은 기본적으로 여러 차례의 집중적인 독서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복적 독서를 바람직한 독서의 조건으로 설명하였다. 이제 4가지 독서 층위가 내포하고 있는 각각의 기능작용과 목표를 그림과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에서 양방향 화살표는 각 층위별 독서방식이 상호 유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 I : 대화적 독서 층위
- II : 비판적 독서 층위
- III : 상호 텍스트적 독서 층위
- IV : 총체적 독서 층위
- V : 반복적 독서 층위

첫째, 대화적(對話的) 독서는 기본적으로 독서 행위를 작가와 독자가 나누는 무언의 심리적 대화나 담화 상황으로 간주하고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독서행위는 작가와 독자가 나누는 대화적 소통과정에 다름 아니다. 작가가 책을 통하여 어떤 물음에 대한 응답과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독자 또한 동시에 그 나름의 질문과 응답을 주고 받는 상호적 대화의 파트너이다. 뿐만 아니라, 독자는 텍스트를 읽으면서 현실적 자아와 공감적 자아의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양자간의 대화적 메커니즘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독서과정에서는 독자와 작중인물간의 대화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다. 어떤 작중인물에게는 공감을 표시하고, 또 어떤 인물에게는 반감을 표시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독자는 텍스트 속에 내재된 세계나 철학, 이념, 절대적 가치 등의 대상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독서의 메커니즘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화의 차원들이다. 이러한 대화적 소통체계 속에서 독자는 보다 은밀하고 깊이 있는 텍스트의 세계에 이입할 수 있다.

둘째, 비판적(批判的) 독서는 독자가 책의 내용과 작가의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읽는 것을 뜻한다. 텍스트의 객관적 수용은 비판

적 독서상황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 비판적 독서는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가 함유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보다 쉽게 포착하게 도와주며 문제해결에도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 나서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독자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유와 인식의 힘을 기르는 동시에 바람직한 인간관과 세계관을 정립하는 데도 도움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독서내용의 비판적 수용은 창조적 상상력을 촉발하고, 작가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가치와 의미의 세계를 자각하게 도와주는 물론, 텍스트의 의미영역을 역설적인 세계까지 확장케 함으로써 총체적 독서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 이와는 달리, 비판의식 없이 수행되는 독서는 독자를 작가의 아류에 영합하게 함으로써 균형 있는 인식의 발전을 저해한다.

셋째, 상호(相互) 텍스트적 독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현재 읽고 있는 텍스트와 밀접한 연관성(동일성, 유사성, 연속성 등)을 지니고 있는 다른 텍스트를 떠올리거나 함께 연상하며 읽으라는 말이다.⁵⁾ 이 층위는 독서의 심화와 내면화 과정을 위한 필수 단계로서 보다 폭넓은 독서와 깊이 있는 독서를 지향하기 위한 독서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⁶⁾ 텍스트 상호간의 의미 연관성을 살피는 것은 궁극적으로 독자의 인식지평을 확장하고 가치인식을 확대 심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서로 다른 텍스트간의 제목, 구조, 주제, 제재, 인물, 형식, 기법, 정서, 시대배경, 미의식 등의 차원에서 의미와 상징의 유사성과 동일성, 연속성을 함께 체험하는 것은 총체성을 지향하는 독서지도의 목표와도 연결된다. 문학작품을 예로 든다면, 김춘수의 시 [꽃을 위한 서시]와 박남수의 시 [새]⁷⁾, 그리고 양귀자의 소설 [숨은 꽃]⁸⁾ 등은 주제의 관점에서 상호 텍스트적 동일성과 유사성을 보여준다. 이와는 달리, 김동리의 [황토기]와 서영은의 [먼 그대]처럼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이질적인 세계관과 운명관의 차이를 더 큰 총체적인 텍스트의 우주 속에서 상호 보완적인 의미로 제시하는 작품도 있다.⁹⁾ 이때 독자들은 이들 작품을 함께 견주어 읽음으로써 보다 넓고 깊은 가치나 인식의 세계와 만날 수 있다.

5) 金旭東, 대화적 상상력(文學과知性社, 1988), pp.160-165.: 여기서 상호 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란 러시아 형식주의 비평가 미하일 바흐친의 다성성(多聲性), 혹은 대화성(對話性)을 줄리아 크리스테바와 츠베탕 토도로브가 사용한 용어로서 '어느 한 문학 텍스트가 다른 문학 텍스트와 맺고 있는 상호 관련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6) 최현섭 외 공저, 『국어교육학개론』(제2판)(삼지원, 1999), p.416.

구인환 외 공저, 『文學教育論』(제3판)(삼지원, 1998), pp.296, 313, 320.

7) 안성수, "언어의 숙명성과 존재탐구의 시학", 계간 『시세계』, 91년 겨울호, 1991, 12.

8) 안성수, "상호 텍스트성과 문학교육", 『문학교육학』, 제2호, 한국문학교육학회, 1998.

9) 안성수, "대화적 상상력과 화답의 구조", 『현대소설연구』, 제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7.

넷째, 총체적(總體的) 독서는 텍스트가 함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와 효용성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노력하여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총체적 체험이 가능하게 읽으라는 말이다.¹⁰⁾ 예컨대, 텍스트의 해석과 분석의 초점을 어느 한 관점에만 고정시키지 말고 가능한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포용하여 텍스트의 의미와 상징을 극대화시켜 포착하고 수용하라는 뜻이다. 텍스트를 어떤 제한적 관점과 방법으로만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분명 텍스트의 다양한 의미작용과 내포성을 간과하거나 해석의 가능성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독자는 텍스트의 함축성을 최대한 개방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해석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이러한 총체적 독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대화적 독서, 비판적 독서, 상호 텍스트적 독서 등이 유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반복적(反復的) 독서는 앞에서 언급한 유기적인 다층적 독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본조건이자 기본전략의 하나이다.¹¹⁾ 세상의 어떤 텍스트도 일회적인 독서만으로 의미해석이 완결될 수는 없는 법이다. 또, 언어로 쓰인 텍스트는 독서 환경과 독자의 심리적 상황 등에 따라 독서 결과와 감동의 밀도가 다를 수 있다. 어제 읽을 때의 감동과 오늘 읽을 때의 느낌이 다를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읽는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독서, 보다 깊이 있는 독서가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반복적 독서는 독자의 취향에 따라 각 층위별로 수행하여 유기적으로 종합하거나, 순환적인 독서의 틀 속에서 수행해도 좋다.

이러한 사실은 텍스트의 객관적 이해나 깊이 있는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반복적인 독서가 필요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독서를 진행하는 동안 총체적 독서의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독서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독서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10) 독서의 총체성(totality)은 독서체험의 궁극적이고 이상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독자가 독서행위를 통해서 텍스트가 함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완전무결하게 읽어내는 것을 뜻한다. 비록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런 정신으로 독서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독서 태도이다.

11) 에밀 파제는 『독서술(L'ART DE LIRE)』(1923)에서 반복적 독서(거듭읽기)를 해야 할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즉 '작가와 작품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세부와 문체를 즐기고 독서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과거의 자기를 현재의 자신과 비교하기 위해서'(이휘영 역, 『독서술』, 서문당, 1997, pp.181-192.).

2. 독서(지도)의 5단계

지금까지 밝혀진 독서 단계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교육부 검정 『독서』 교과서에 실려있는 단계들을 정리해 보면, <단어의 이해 — 자구적 독해 — 추론적 독해 — 비판적 독해 — 감상적 독해>나 <어휘의 이해 — 판독하며 읽기 — 상상하며 읽기 — 비판하며 읽기 — 감상하며 읽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¹²⁾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이 안고 있는 공통된 한계는 현장성과 실용성이 떨어지는 점이다.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독서과정에서는 불필요하거나 추상적인 단계의 설정이 오히려 독서행위의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단어의 이해나 자구적 독해, 혹은 판독하며 읽기 등은 한 단계로 묶거나 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추론적 독해나 상상하며 읽기도 정상적인 독서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독서의 단계론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SQ3R 기법이다. 이것은 1920년대 '효과적인 학습방법(effective study)' 이란 제목으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프랜시스 로빈슨(Francis Robinson)이 개발한 방식으로 <내용 훑어보기(Survey) — 훑어본 내용 질문하기(Question) — 꼼꼼히 읽기(Read) — 읽은 내용 되새기기(Recite) — 읽은 내용 검토하기(Review) >의 5단계로 진행된다.¹³⁾ 비교적 무난한 방법으로서 논리적이고 비문학적인 텍스트 읽기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 12) ① 조남현·노명완·최원식, 고등학교 『독서』(한샘출판(주), 1995): 단어 이해, 자구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감상적 이해
 ② 박갑수·한철우, 고등학교 『독서』(지학사, 1995): 어휘의 이해, 판독하며 읽기, 상상하며 읽기, 비판하며 읽기
 ③ 오세영·김영철, 고등학교 『독서』(천재교육(주), 1995): 자구적 독해,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감상적 독해
 ④ 김봉근·이석규·한연수, 고등학교 『독서』(지학사, 1995): 단어의 이해, 자구적 독해,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감상적 독해
 ⑤ 윤홍로·김계철, 고등학교 『독서』(탐구원, 1995): 독해와 언어, 자구적 독해,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감상적 독해
 ⑥ 이광호·류재엽·이상준, 고등학교 『독서』(재능교육, 1995): 독서와 언어, 자구적 독해,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감상적 독해
- 13) E.P. Robinson, *Effective Reading*(New York : Harper & Row, 1962): 이 방법은 그 후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변형 발전되었다. 예를 들면, Rauk의 OK4R(1962), Spache의 PQRST(1963), Bergman의 T-SQUARE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로빈슨의 SQ3R 독서기법은 문학 텍스트의 독서방법으로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필자는 로빈슨의 기법을 참고하여 문학 텍스트의 독서방법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이것은 필자가 평소 즐겨 사용하는 5단계 독서법으로서, <빠른 속도로 훑어보기(速讀) → 보통 속도로 꼼꼼히 읽기(精讀) → 질문하며 뜯어읽기(비판적 摘讀¹⁴⁾) → 감정이입과 공감하기(감상) → 평가와 독서 기록부 정리하기(총체적 독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¹⁵⁾ 이것은 문학 텍스트 뿐만 아니라, 비문학적인 텍스트 읽기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¹⁶⁾ 단계별 특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빠른 속도로 훑어보기>는 독자가 빠른 속도로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速讀하면서 독서내용의 핵심 줄거리와 사건 등을 살피는 단계이다. 본격적인 독서에 앞서 예비독서 과정으로 실시되는 이 과정은 능률적인 독서를 위해 필요하다. 텍스트의 핵심적인 흐름이나 주제와 연결되는 중요한 사건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데도 효과적이다. 게다가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체크하면서 읽으면 정독 과정을 한층 수월하게 진행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유리하다.

둘째, <보통 속도로 정독하기>는 예비독서 과정에서 획득한 텍스트 정보를 환기하면서 총체적 독서를 지향하는 본격적 독서단계에 해당된다. 예컨대, 정확하고 신중한 독서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내용을 질적, 양적 차원에서 극대화시키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는 텍스트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찾아내려는데 목표를 둔다. 독자는 지독(遲讀)이나 체독(體讀)까지 동원하여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읽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텍스트의 구조와 의미작용 및 상징작용을 객관적으로 포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정독 단계에서는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층위를 유기적으로 고려하면서 텍스트가 함유한 의미와 상징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찾아내려는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14) 적독(摘讀)이란 독자가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골라 읽는 발취독(拔萃讀)을 이르는 말이다. 처음부터 텍스트를 차례로 읽는 것은 통독(通讀), 텍스트의 외연적인 문자적 의미만을 읽는 것은 색독(色讀), 내포된 의미를 몸으로 느끼면서 읽는 것은 체독(體讀)이라고 한다.

15) 이 방법은 필자가 기능적인 독서전략의 차원에서 10여 년 넘게 실험적으로 실천해오고 있는 방식이다.

16) 필자의 독서단계론에는 '단어의 이해'나 '자구적 이해'는 특별히 독서단계로 설정하지 않는다. 난해한 단어와 자구의 이해는 독자가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주어진 문맥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셋째, <질문하며 뜯어읽기>는 속독으로 훑어읽기(1단계)를 통해 찾아내고, 정독(2단계)을 통해서 파악된 중요한 내용과 문제들을 심층적인 질문 과정을 거치면서 독서 내용을 심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정독과정에서 드러난 중요한 의미와 상징들은 이 단계에서 비판적으로 질문하고 뜯어읽음으로써 독자 중심의 인식 논리와 감동 구조로 보완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깊이 읽기의 목표와 독자 중심의 감상 논리가 객관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정독과정에서 미진했던 의미파악이 이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명료해지고 확실하게 정리될 수 있다.

넷째, 감정이입과 공감하기는 앞서 실시된 독서 효과를 수용자의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그 효용성을 누리고 습득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가 문학작품인 경우에는 감정이입을 통한 미적 쾌감과 미적 감동 논리를 공유하는 단계가 되고, 비문학적 텍스트인 경우에는 논리적 지식과 지적 상상작용을 통한 사유체계의 확장과 심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독자가 무엇을 얻고 어떤 감동과 느낌을 체험하고 공유하는가는 전적으로 앞선 과정과의 유기적인 독서행위를 수행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끝으로, <평가와 독서기록부 정리하기>는 지금까지의 독서 효과와 그 체험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내리고, 그 평가결과를 최종적으로 독자 자신의 언어와 논리로 정리하는 단계이다. 텍스트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에는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된 구체적인 근거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독서기록은 독서의 최종단계이다. 독서와 감상을 마치고 난 뒤 그 결과를 문장으로 서술하여 독서의 결과물로 남겨놓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독서기록부의 작성 형식과 내용 및 기술 절차는 독자의 지적 수준과 발달단계에 따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작품을 다 읽고 나서 독서결과를 기록하는 것은 매우 귀찮은 작업일 수도 있으나 성실하게 기록으로 남겨놓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서기록부 작성 전에는 반드시 독자의 수준에 따른 감상문 작성법이나 메모 방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그리고 나서 작성된 독서 메모는 지도교사가 확인하고 교정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학생과 지도교사 사이의 깊이 있는 의견교환과 독서지도가 심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5단계 독서법은 모든 독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수행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읽어야 할 텍스트의 수준과 내용 및 필요에 따라서, 혹은 독자의 지적 수준과 관심도에 따라서 그 과정이 축소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으며(예컨대, 정독과정을 한번 더 실시할 수도 있고, 질문하며 뜯어읽기 과정을 한번 더 실

시할 수도 있다), 독서 단계의 실행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완전무결한 방법과 단계란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독서환경이나 독서상황의 변화, 또는 독서이론의 학문적 발전에 따라 앞으로도 얼마든지 수정 보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바람직한 독서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

IV. 독서교육과 전인교육의 관계

독서는 한 마디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총체적인 전인교육을 지향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인간 능력의 대부분은 독서행위를 통해서도 바람직하게 계발하고 확충시킬 수 있다. 이러한 독서 효과는 독자의 조화로운 인간형성에 필요한 IQ, EQ, MQ의 힘을 종합적으로 계발하고 심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일반적으로 지능지수, 감성지수, 도덕지수는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인간의 정신능력이다.¹⁷⁾ 이제 독서행위가 어떻게 이런 능력들을 종합적으로 배양하고 함양시키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인간은 독서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지적능력(Intelligence Quotient)¹⁸⁾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인간은 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세계와 다양한 인간, 다양한 상황, 다양한 삶을 느끼고 상상하며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정신능력을 종합적으로 키울 수 있다. 예컨대, 독서는 인간의 뇌가 지니고 있는 180여 가지의 능력¹⁹⁾ 중에서 기억력, 인식력, 사고력, 판단력, 논리력, 추리력, 창의력, 상상력 등과 같은 핵심적인 정신 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체험의 시공간을 제공한다. 독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사고력과 인식력을 키워나가고, 판단력과 논리력 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간접경험을 통한 독자들의 정신능력의 확장은 유기적인 지적능력의 발달로 이어져서 결국 종합적인 인간능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

17) 필자는 기본적으로 풍부한 독서를 통해서 인간의 정신능력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함양할 수 있다고 본다.

18) 黃禎奎, 人間の 知能(民音社, 1987) / 임규혁, 학습심리학(학지사, 1997) / 이군현 외, EQ, IQ, 창의력(여성사, 1997)

19) 길포드(Guilford)는 1959년 인간의 기본적인 정신능력이 120개의 독립적인 요인들로 구성된다는 주장을 했다가, 1982년 "Cognitive Psychology's Ambiguity"에서 150개로 수정했으며, 1988년에 다시 180개의 요인으로 확장하여 제시했다.

특히 스키마(schema)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지능은 독자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경험들이 어떤 구조로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적능력이 좌우된다는 이론이다. 개인적 체험의 일종인 독서는 다양한 정보를 기억 속에 저장하도록 도와주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점에서 지적능력의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²⁰⁾

둘째, 독자는 독서행위를 통해서 감성지능(EQ)²¹⁾을 높일 수 있다.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란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식·수용·조절·통제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감성지능은 구체적으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과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 주어진 상황을 자신의 처지로 동기화 하는 능력, 자신의 잠재된 감성 능력을 계발하고 감정이입을 통해 타인의 처지를 수용하고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인간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능력 등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감성지능이란 독자가 어떤 곤경에 처해있을 때,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충동과 기분을 조절하고 통제하여 바람직한 상황으로 발전시켜 나가는가를 결정짓는 감정 조절 능력, 혹은 감정 대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감성 조절 능력은 독서를 통해서도 함양할 수 있다. 체계적이며 폭넓고 깊이 있는 독서행위는 독자로서 하여금 감성 인식 능력과 감성 조절 능력, 감성의 동기화 능력, 감정이입(공감) 능력 등을 고양시켜 줌으로써 감성지능을 높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독자는 책을 읽는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희생되는 주인공과 하나가 되기도 하고, 파렴치한 악인을 용서하는 방법도 배우게 된다. 이러한 감정이입을 통한 독서 체험이 독자의 감성지능을 높여 주는 방법이 된다.

셋째, 독자는 독서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도덕지능(Moral Quotient)²²⁾을 함양시킬 수 있다. 도덕지능은 다양한 삶과 인간관계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는 윤리적 마음가짐과 도덕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들은 구체적인 텍스트의 상황 속에서 비록 간접체험이지만, 도덕적 상황 인식능력을 향상시키고 도덕성의 감정이입

20) 신현재 외 편저, 독서교육의 이론과 방법(박이정, 1996), pp.29-36.

21) 대니얼 골먼, 감성지능(상), (하), 황태호 옮김(비전 코리아, 1997) / 도리스 매틴·카린 북, EQ-감성지능개발학습법, 홍명희 옮김(해냄, 1996) / 지그프리트 브로커트·가브리엘 브라운, EQ 텍스트 북, 홍명희 옮김(해냄, 1997) / 김언주 외, 우리 아이 EQ 높이기(학지사, 1998)

22) 로버트 콜스, 도덕지능[MQ], 정홍섭 옮김(해냄, 1997)

기회를 자주 갖게 됨으로써 도덕지수를 고양시키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책읽기를 통해서 수많은 인간의 삶과 만나면서 바람직한 윤리와 바람직하지 못한 윤리적 상황을 체험하게 되어 자신의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을 높이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독서행위는 인간의 지능발달과 감성발달, 그리고 도덕성의 발달 등을 가능하게 이끌어 줌으로써 인간성의 타락을 막고 인간능력을 바람직한 차원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전인적 교육의 힘과 동기를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독서는 인간의 언어능력과 심미안을 발전시켜 주고 가치관을 확립시켜 주며,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컨대, 독자들을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문장표현과 독특한 문체와 만나면서 언어사용 능력을 확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표현력과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수많은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과 만나면서 미의식과 미적 감식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심미안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어휘선택의 폭이 넓고 미를 감상하는 안목이 심원한 것도 같은 이치이다. 그리고 독서는 인간의 바람직한 가치관을 판별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건강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겸비한 성숙한 인간의 길로 이끌어 주게 된다.

V. 결 론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첫째, 독서교육과 독서지도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는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대체로 드러난 독서교육의 실태를 비판적으로 제기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하였다. 여기서 드러난 문제점은 방관적인 독서환경, 비단계적이고 비체계적인 독서 지도 상황, 전문성을 가진 독서 지도교사의 부재, 선택과목으로 개설된 고등학교 독서과목 등이었다. 그리고 독서의 생활화와 다양한 독서토론회의 개최, 독서공간과 독서자료실의 확충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둘째, 다층적 독서법과 지도전략에서는 필자가 10여 년간 실시해온 독서법과 독서(지도) 5단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다섯 가지 다층적 독서법은 대화적 독서, 비판적 독서, 상호 텍스트적 독서, 총체적 독서, 반복적 독서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각기 개별적 층위에서 독서를 진행하면서도 앞선 층위의 독서 결과를 유기적으로 고려하면서 수용하는 방법이다. 독서지도의 단계론에서도 역시 필자의 경험을 제

시하였다. 빠른 속도로 훑어읽기, 보통 속도로 꼼꼼히 읽기, 질문하며 뜯어읽기, 감정이입과 공감하기, 평가와 독서 기록부 정리하기의 순서로 진행되는 독서지도 5단계는 속독, 정독, 적독, 감상, 평가에 대응되는 개념들이다.

셋째 독서교육과 전인교육의 장에서는 풍요롭고 조화로운 독서행위가 인간의 다양한 정신능력을 자연스럽게 형성 발전시켜 주는 종합적 기능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IQ, EQ, MQ로 설명되는 지적 능력, 감성 지능, 도덕 지능 등이 독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함양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밝혀진 것처럼, 인간은 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정신능력을 심화 발전시키고, 전인적 인간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개인의 집합인 민족이나 국가의 힘도 독서의 힘과 무관하지 않다. 독서의 힘은 국민 개개인의 세련된 교양미와 인격미로 나타나면서 헤르더의 지적처럼 거대한 민족혼(Nation Soul)이나 국가 정신(Nation Geist)을 창조하는 문화의 힘으로 승화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독서는 국민대중의 독서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전체 민중의 문화의식(民度)을 끌어올리는 보편적 수단과 방법이 되기도 한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전자 영상매체가 이끄는 초고속 정보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전통적 의미의 책과 독서의 중요성도 여전히 강조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컴퓨터를 앞세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문명의 병폐는 급기야 인간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세계는 삭막해진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 기름을 치고 구원할 제 삼의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 힘은 강대국의 힘도 아니요 가공할 핵무기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마음을 두루 포용하면서 넓고 깊게 경작해 주는 독서의 은밀한 힘이 될 것이다.

21세기를 꿈꾸는 미래사회의 주역들을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독서교육과 독서지도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인 인식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 정책 당국자와 교사들이 앞장서서 독서교육 개혁에 앞장서는 실천적 모범을 보일 때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한국을 독서문화의 선진국으로 이끌 수 있는 첩경이라고 믿는다.

참 고 문 헌

- 고은 외 엮음, 책, 어떻게 읽을 것인가, 민음사, 1996.
金京一, 讀書教育論. 日潮閣, 1997.
김병원, 機能讀書. 배영사, 1994.
김병원, 새 시대의 讀書教育, 배영사, 1979.
남미영, 엄마가 어떻게 독서지도를 할까?, 대교출판, 1997.
孫正彪, 讀書指導方法論. 學文社, 1997.
황백현, 讀書心理學概論. 圖書文化, 1988.
신헌재 외 편저, 독서교육의 이론과 방법, 1996
천경록 · 이재승, 읽기 교육의 이해, 우리교육, 1997.
에밀 파게, 독서술, 이휘영 옮김, 1997.
F.P.로빈슨, 讀書方法論. 金濤採 譯, 배영사, 1997.
Irwin · Baker, 사고중심 전략중심 독서지도방법, 한철우 · 천경록 역, 교학사, 1996.

Abstract

A Task and Guidance Strategy of Reading Education

Seong-Soo Ahn

This study brings up a problem for exploring ways toward normalization of reading education in the school field. Therefore, by diagnosing the problems of reading education found in the school field, it begins looking for the alternative way. Main problems suggested here were indifferent reading environment, unsystematical and non stage reading education, lack of professional reading teacher, and reading subject of high school as a selective course.

In the second step, in the level of practice of reading or reading guidance I suggest a strategy for fostering reading power of students and training the right reading way of students. In other words, it is the multiple reading way and reading course with fifth step. Multiple reading is dialogic reading, critical reading, intertext reading, total reading, and systematic way of repetitive reading. Reading way of fifth step is skimming reading with high speed, thorough reading with normal speed, splintering reading with asking a question, sympathizing and empathy, and assessment and memo. These ways share double function. In the view of a reader, it can be reading way and it can be reading guidance strategy to a guidance teacher. When these reading education and reading guidance attain desirable achievement, I raised a problem of education for the whole man as a goal that can be achieved in the end. For example, desirable reading can be the most effective means to foster overall mental ability of human. Also desirable reading explained one effective way to pave the way for desirable education for whole man and whole life education.

Finally, through the change of cognition like copernicus about reading education and reading guidance, I emphasized the necessity of reform and support in the level of policy to advance toward culturally developed country for reading by improving reading power of people and promoting the cultural consciousness of total people.